문화유산 해설문 편찬 연구

강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Q1. 문화재 안내판을 왜 개선하나요?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객에게 문화재의 가치, 규모, 형태 등을 설명하기 위해 공공 언어로 쓰여진 안내문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재 안내문안은 전문용어와 한자어, 그리고 비문(非文) 등이 섞여 있어,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개선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한 국민들 의견들이랍니다.

"한자가 한글보다 많아서 읽기 어려워요." 김*혜

"몇 번을 읽어 봐도 잘 모르겠네요." 노*선

"소로 부연? 원옥? 장주초석? 이게 다 뭔가요?" 심*용

"증축이나 신축이라는 한자어 대신 새로 짓다, 늘려 짓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때요?" 서*진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시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설명이 어렵고 와 닿지 않아요.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더 설명이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남*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김*옥

"너무 빽빽해서 끝까지 못 읽겠어요." 곽*샘

"연도가 틀렸어요." 아*민 "한자도 틀리고요." 한*규 "오자도 있네요." 강*기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서*슬

"보부상과 부보상이 같은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설명을 달든지, 하나로 통일하든지." 홍*성

"문화재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문법에 맞지 않아요." 이*호

"녹색 바탕에 흰 글씨,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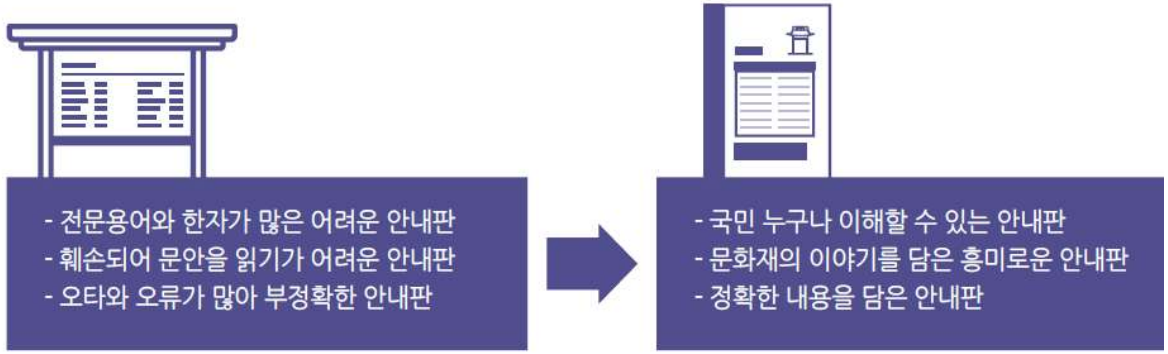
"글자가 지워져서 안 보여요." 서*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안내판 높이가 낮았으면 좋겠어요." 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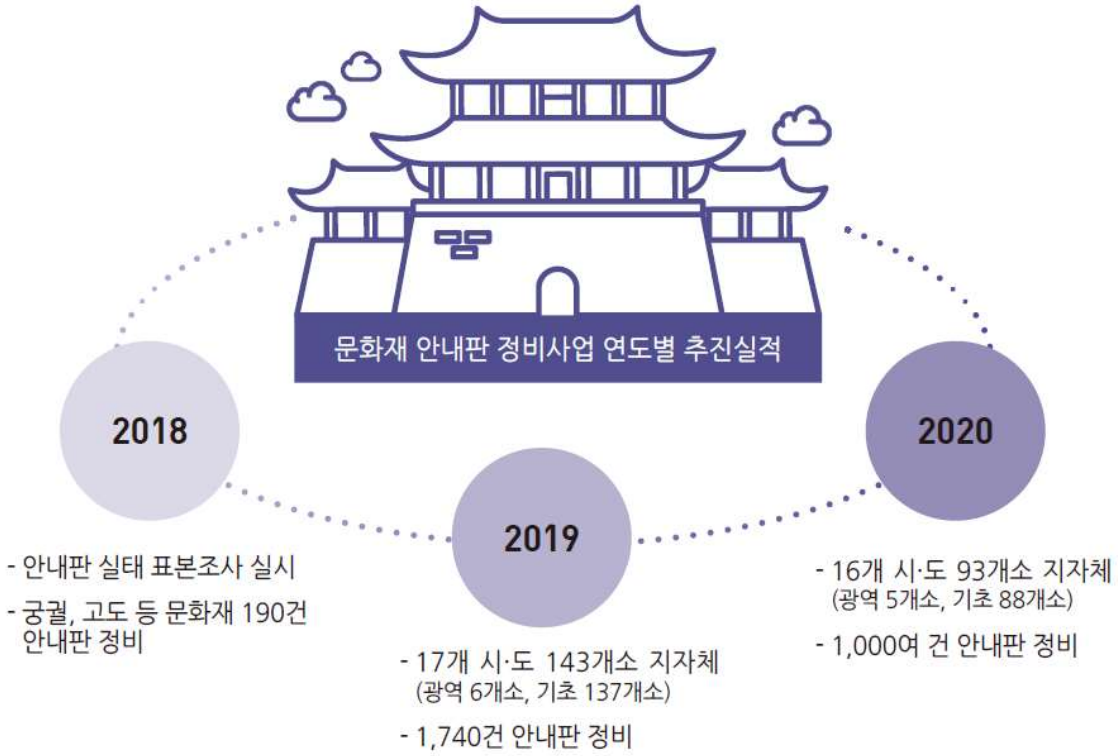
— 찰칵찰칵! 우리 문화재 안내판을 부탁해(2018.7.14.~8.5.) —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문화재청,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경과 (2018~)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방향



『2020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2020.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단계

1.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2. 안내 문안 작성 및 시민자문단 검토
3. 국·영문 감수 및 문안 최종 확정
4. 안내판 제작과 설치
5. DB등록과 사후 관리

국문 초안 작성 지원(202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자문단 구성

구분	참여대상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해설사, 문인,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영문 감수기관(2019~)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2020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2020.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

분류	세분류	설치기준	담겨야 할 정보	설치사례
해설안내판	종합 안내판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 전체 지도 • 연표	경복궁, 융건릉, 화엄사, 계양산성, 고인돌군 등
	권역 안내판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 권역 지도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자경전, 융릉, 건릉, 화엄사 각황전 등
	개별 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경복궁 근정문 및 행각, 융릉 개비자나무, 계양산성 집수정, 화엄사 각황전 돌항아리, 개별로 지정된 석탑 등
기능성 안내판		길 찾기(동선유도 · 편의시설 등), 금지 · 주의, 공공(픽토그램 등), 정보알림판, 임시		

● 출처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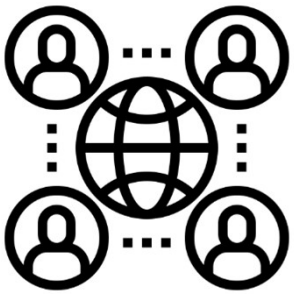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문화재청, 2019.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 편찬 프로세스

자료 조사 및
영문 번역용 원고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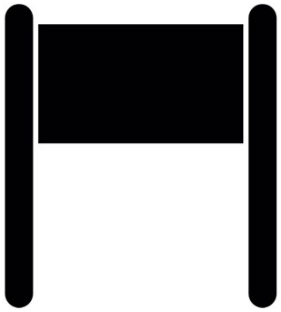
영문 번역

원어민 감수



집필 및 감수진 검토회의

최종 검수 및 교열



시안 검수

영문 해설 집필 및 감수 기본 원칙

1

- 대상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맥락 설명
- 과다한 정보는 생략
-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2

- 관련 있는 문화재,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설명
- 외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세계 역사·문화, 보편적 가치 등과 연계

3

- 영문 안내문안의 독자는 '한국어를 모르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모두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작성
-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길이로 단락을 구분

영문 해설문 사례 -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국문

부소산성은 사비도성을 방어하는 핵심시설로,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기던 시기인 백제 성왕 16년(538)을 전후하여 쌓은 성이다.

번역용 원고

부소산성은 부소산(해발 106m) 정상을 둘러싸고 쌓은 성으로, 백제(기원전 18년~660년)가 사비(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긴 538년 경에 지어졌다. 백제는 한성(지금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었다가, 475년에 웅진(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고, 사비로 다시 수도를 옮겼다.

영문

This fortress encircling the peak of Busosan Mountain (106 m above sea level) was built around 538 when the capital of the Baekje kingdom (18 BCE-660 CE) was moved to Sabi (today's Buyeo area). Originally founded in Hanseong (today's Seoul area), Baekje moved its capital to Ungjin (today's Gongju area) in 475 and then again to Sabi.

번역용 원고 작성 사례

-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鵲山精舍 및 可倉齋舍) –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21호
- 작산 구 강당 및 주사 (鵲山 舊 講堂 및 廚舍) –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22호

작산 구 강당 및 주사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작산 구 강당 및 주사

이 건물들은 송안군 이자수(松安君 李子脩)의 덕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에 후손들이 지었다. 후학들의 학문연구를 위한 공간인 강당과 향사를 준비하는 주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수는 고려말의 인물로 홍건적의 침입 때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워 송안군에 봉해졌다.

강당은 왼쪽에 축담을 2단으로 높이 쌓아 올려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가운데 3칸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다. 주사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건물로 전면에 대문을 두고 그 왼쪽에 마구간과 2칸의 창고를 두었다. 주사의 뒤쪽에 3칸 대청을 두었는데 이 공간은 행사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의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자수를 기리는 건물이
왜 안동에 세워졌을까?

왜 구(舊) 강당이지?

언제 지어진 건물일까?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이 건물은 작산정사와 가창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산군수와 선산부사 등을 역임한 이정(李禎)의 묘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 성종 11년(1480)에 퇴계 이황의 조부 삼형제가 가창재사를 처음 건립하였으며, 이후 송안군 이자수(松安君 李子脩)의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작산정사를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정사는 앞면에 강당이 있고, 뒷편에는 송안군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재사는 동쪽에 따로 세워져 있는데 전면에 6칸 누마루가 있고, 그 뒤로는 재실이 있는 전형적인 재사건축 양식을 보이며 9칸 규모의 큰 방을 가진 점이 특징이다.

이정, 이황, 이자수는 무슨 관계일까?

작산정사를 현 위치로 옮겼다면,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

작산 구 강당 및 주사

이자수를 기리는 건물이 왜 안동에 세워졌을까?

- 이자수는 고려말의 인물로 홍건적의 침입 때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워 송안군에 봉해졌다.
- ‘이자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고려 우왕 때 진보현(현 청송군 진보면)에서 풍산현 마라촌(현 풍산읍 마애리)로 이주한 진성이씨 안동 입향조
- 이후 5세손 이황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안동 지역에서 번창하고 명문가로 자리잡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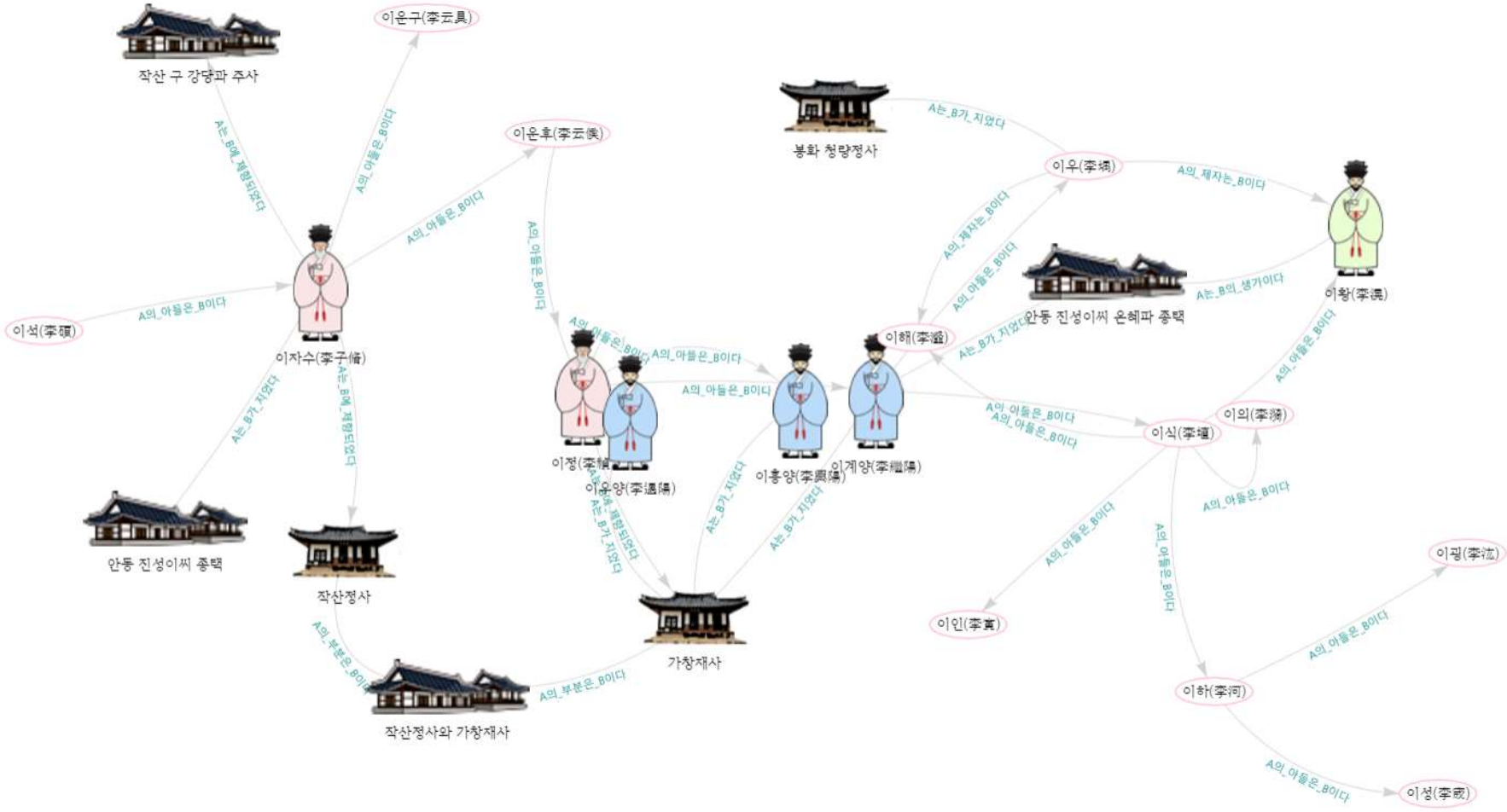
이정, 이황, 이자수는 무슨 관계일까?

- 이석 → 이자수 → 이운후 → 이정 → 이계양 → 이식 → 이황

언제 지어진 건물일까?　　왜 구(舊) 강당이지?

- 구 강당과 주사가 처음 지어진 시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우양, 이흥양, 이계양 삼형제가 아버지 이정을 추모하기 위해 1480년 가창재사를 건립하면서,
  증조부이자 가문의 입향조인 이자수를 기리는 정사를 가창재사 옆에 다시 세움.
- 원래 이자수를 기리던 건물은 ‘작산 구 강당’으로 불리게 됨.
  (실제로는 작산정사 / 구 작산정사 가 맞을듯)

진성이씨 가계와 관련 문화유산



http://dh.aks.ac.kr/~heritage/wiki/index.php진성이씨.lst

작산 구 강당 및 주사 – 번역용 원고, 영문 해설문

영문

Former Lecture Hall and Ritual House of Yi Ja-su

These buildings were constructed to honor Yi Ja-su and educate his descendants. Yi Ja-su was the first person from the Jinseong Yi Clan to settle in the Andong area in the early 14th century. H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uppression of the Red Turban invasions of Korea (1359-1362).

The lecture hall consists of a wooden-floored hall with two underfloor-heated rooms to either side. The ritual house was used for the preparation of ceremonial rituals. It includes a stable, a warehouse, and a wooden-floored hall.

The exact construction period of these buildings is unknown. Sometime after 1480, a new shrine dedicated to Yi Ja-su was built nearby, after which this lecture hall ceased its original function.

번역용 원고

이 건물들은 이자수를 기리고 후손들을 교육하고자 지은 것이다. 이자수는 진성이씨 가문의 안동 입향조로 홍건적의 난(1359-1362)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학문연구를 위한 공간인 강당은 가운데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다. 주사는 제사를 준비하던 공간으로, 마구간, 창고, 대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물들이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1480년 이후, 이자수를 기리는 새 사당이 근처에 지어졌고, 이 강당은 원래의 역할이 멈추게 되었다.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 번역용 원고

영문

Jaksanjeongsa Shrine and Gachangjaesa Ritual House

Jaksanjeongsa Shrine and Gachangjaesa Ritual House were built by the Jinseong Yi Clan to honor their ancestors and educate their descendants.

Jaksanjeongsa Shrine honors Yi Ja-su who, in the early 14th century, became the first person from the Jinseong Yi Clan to settle in the Andong area. Originally, the nearby Former Lecture Hall and Ritual House served as a shrine for Yi Ja-su. However, after Gachangjaesa Ritual House was built in 1480, Yi's descendants decided to build this new shrine complex. This complex consists of a lecture hall in the front and a shrine in the back that holds the spirit tablet of Yi Ja-su.

Gachangjaesa Ritual House was built in 1480 to hold ceremonial rituals for Yi Jeong, the grandson of Yi Ja-su, who served as local magistrate of various regions in the early 15th century. It has an elevated wooden-floored porch in the front and rooms to accommodate the ritual participants in the back. Yi Jeong is the great-grandfather of Yi Hwang, one of Korea's most renowned Confucian scho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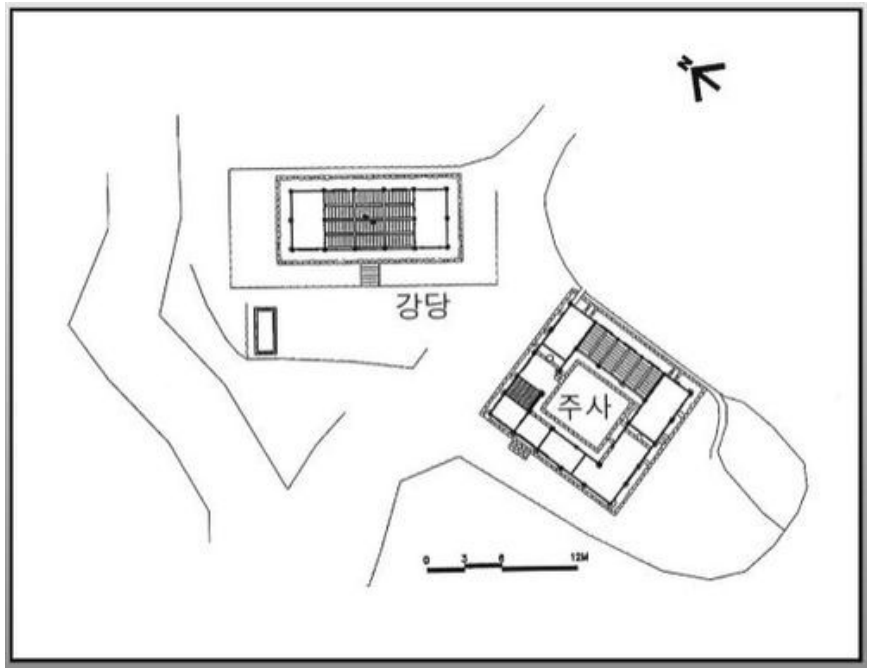
번역용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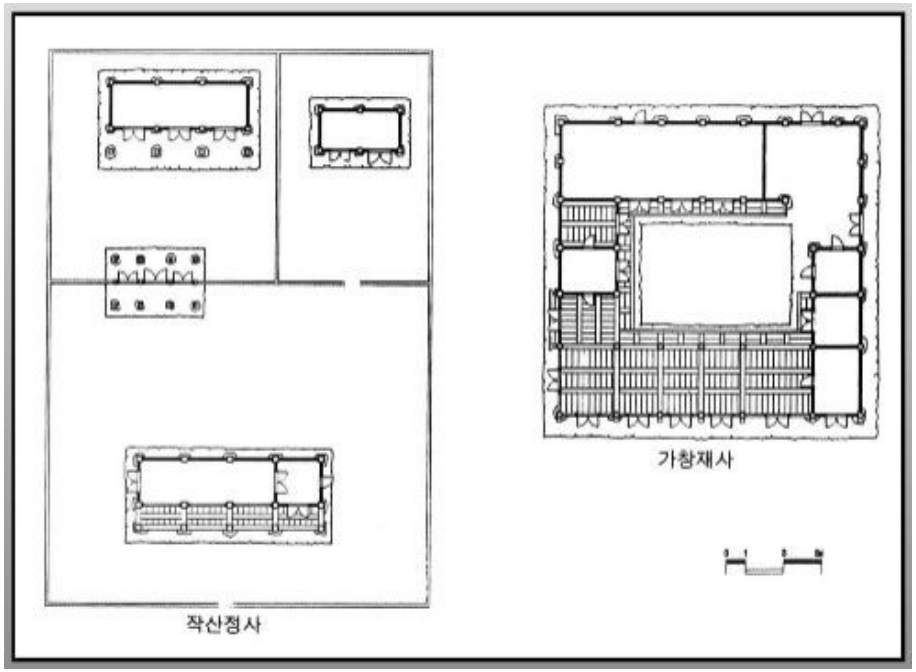
작산정사와 가창재사는 진성이씨 가문에서 선조를 기리고 후손을 교육하고자 지은 것이다.

작산정사는 진성이씨 가문의 안동 입향조인 이자수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원래는 근처에 위치한 작산 구 강당과 주사가 이자수를 기리는 사당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1480년 가창재사가 건립된 후, 이자수의 후손들이 이곳에 새 사당을 짓기로 하였다. 작산정사는 앞쪽에 강당이 있고, 뒤쪽에 이자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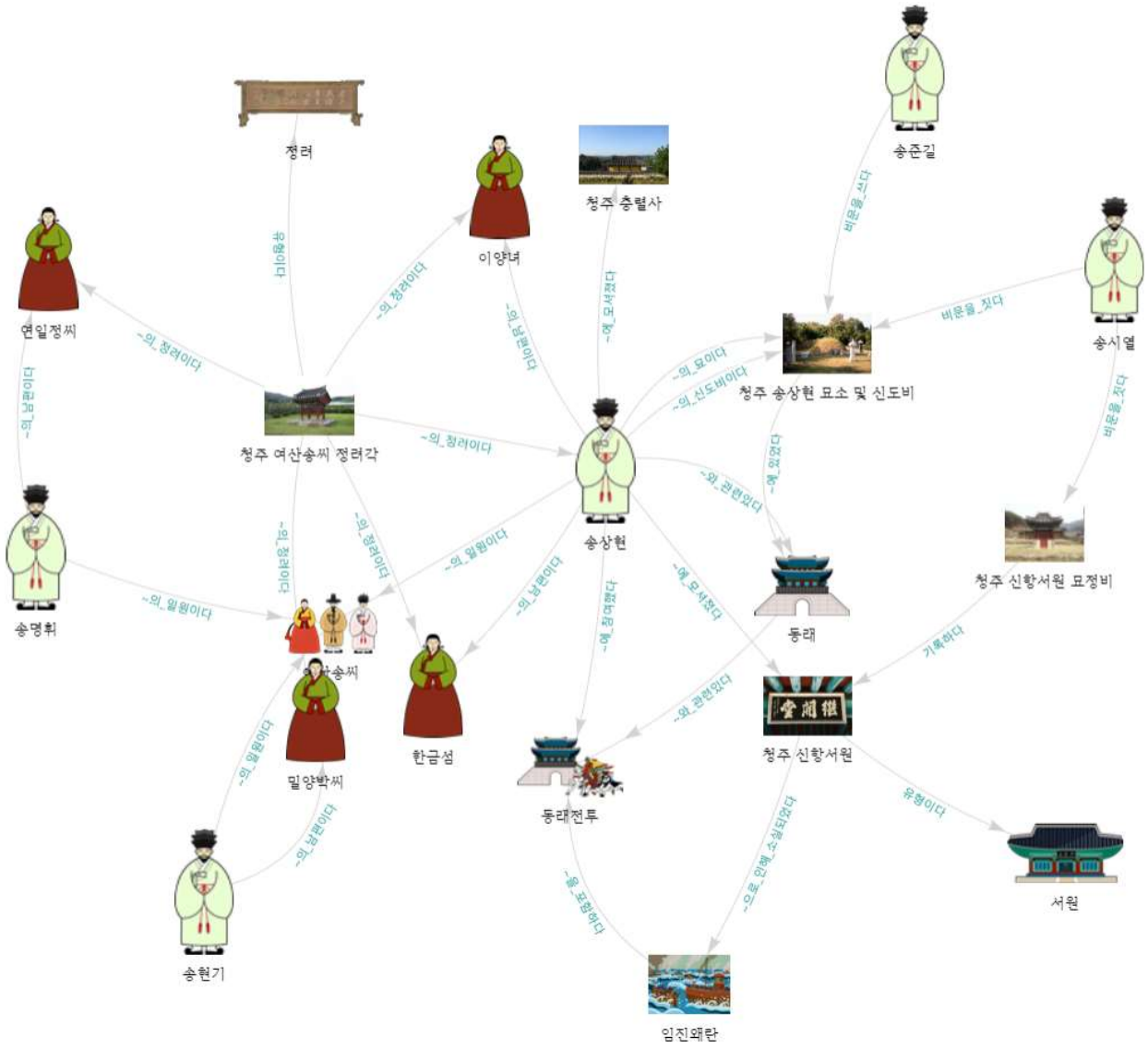
가창재사는 15세기 초 한산군수와 선산부사 등을 지낸 이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1480년에 지은 것이다. 앞쪽에는 누마루가 있고, 뒤쪽에는 제사에 참석한 후손들이 쓰던 방이 있다. 이정은 한국 최고의 유학자 중 한 사람인 이황의 증조부이다.

작산 구 강당 및 주사 /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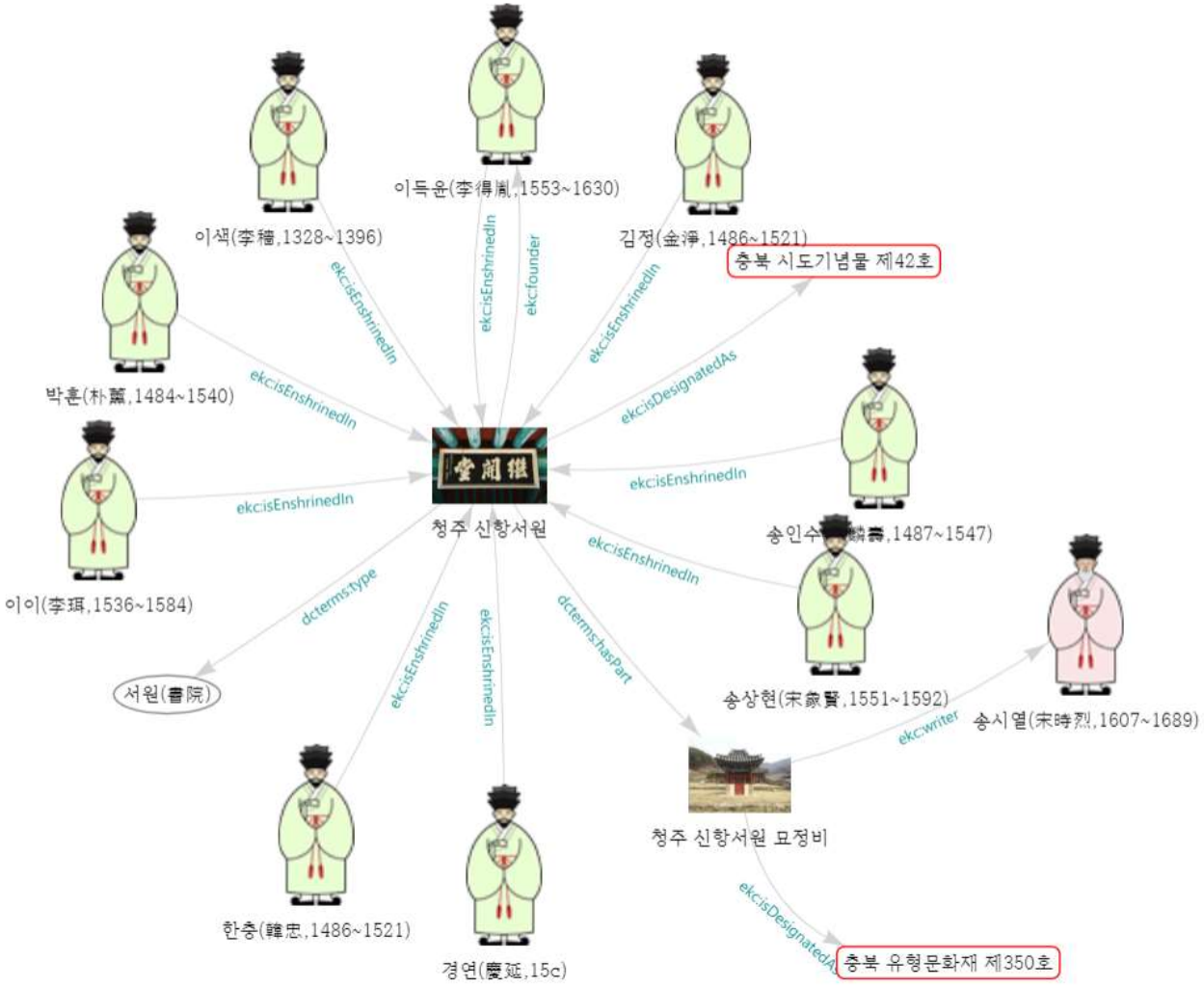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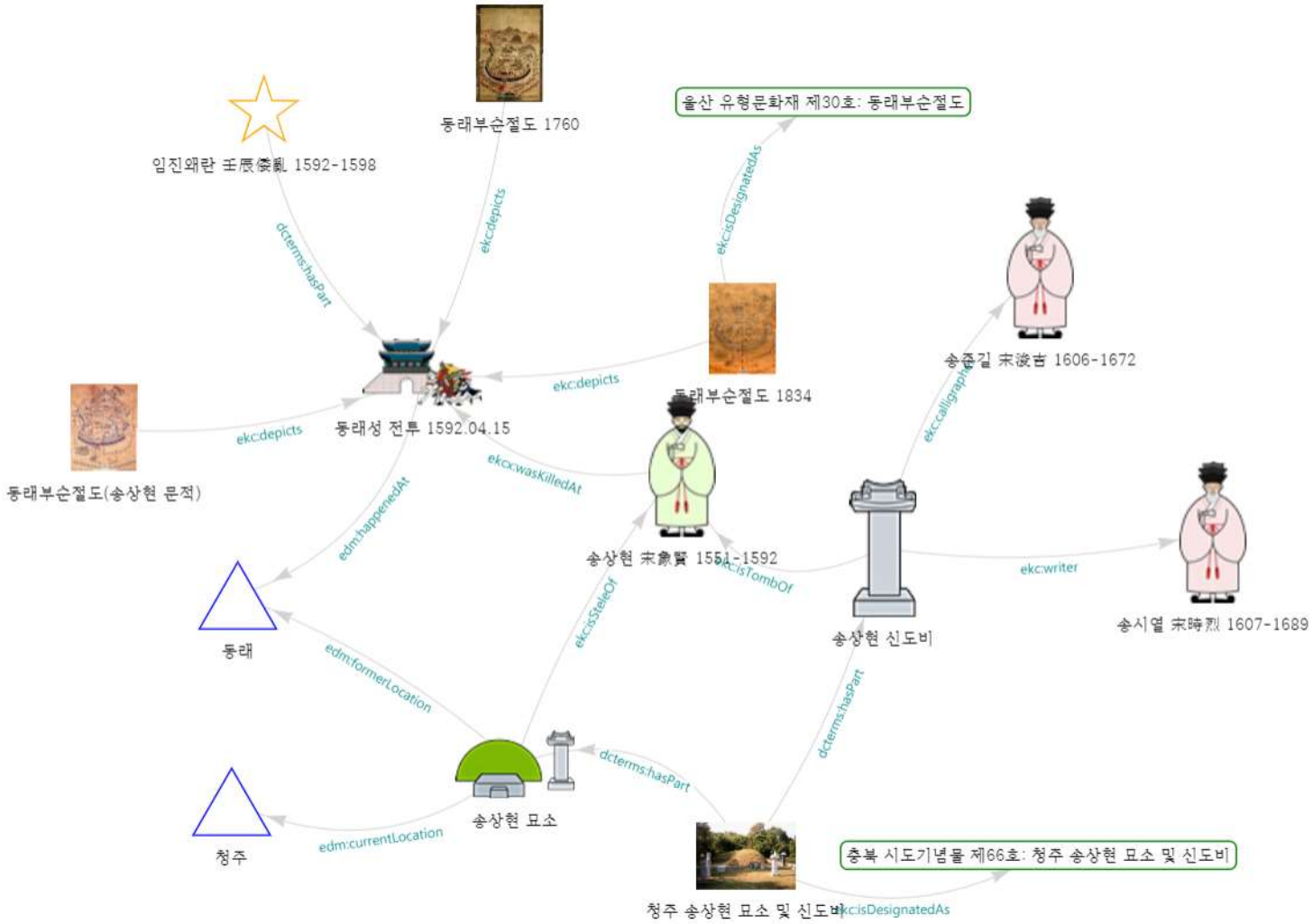
동래부사 송상현


정려
이양녀
청주 충렬사
송준길
연일정씨
청주 여산송씨 정려각
청주 송상현 묘소 및 신도비
송시열
송상현
송명휘
여산송씨
한금섬
밀양박씨
동래
청주 신항서원 묘정비
청주 신항서원
동래전투
송현기
서원
임진왜란
~의_정려이다
~의_남편이다
~의_묘이다
~의_신도비이다
~의_일원이다
~에_모셔졌다
~에_참여했다
~와_관련있다
비문을_썼다
비문을_짓다
기록하다
유형이다
~을_포함하다
~으로_인해_소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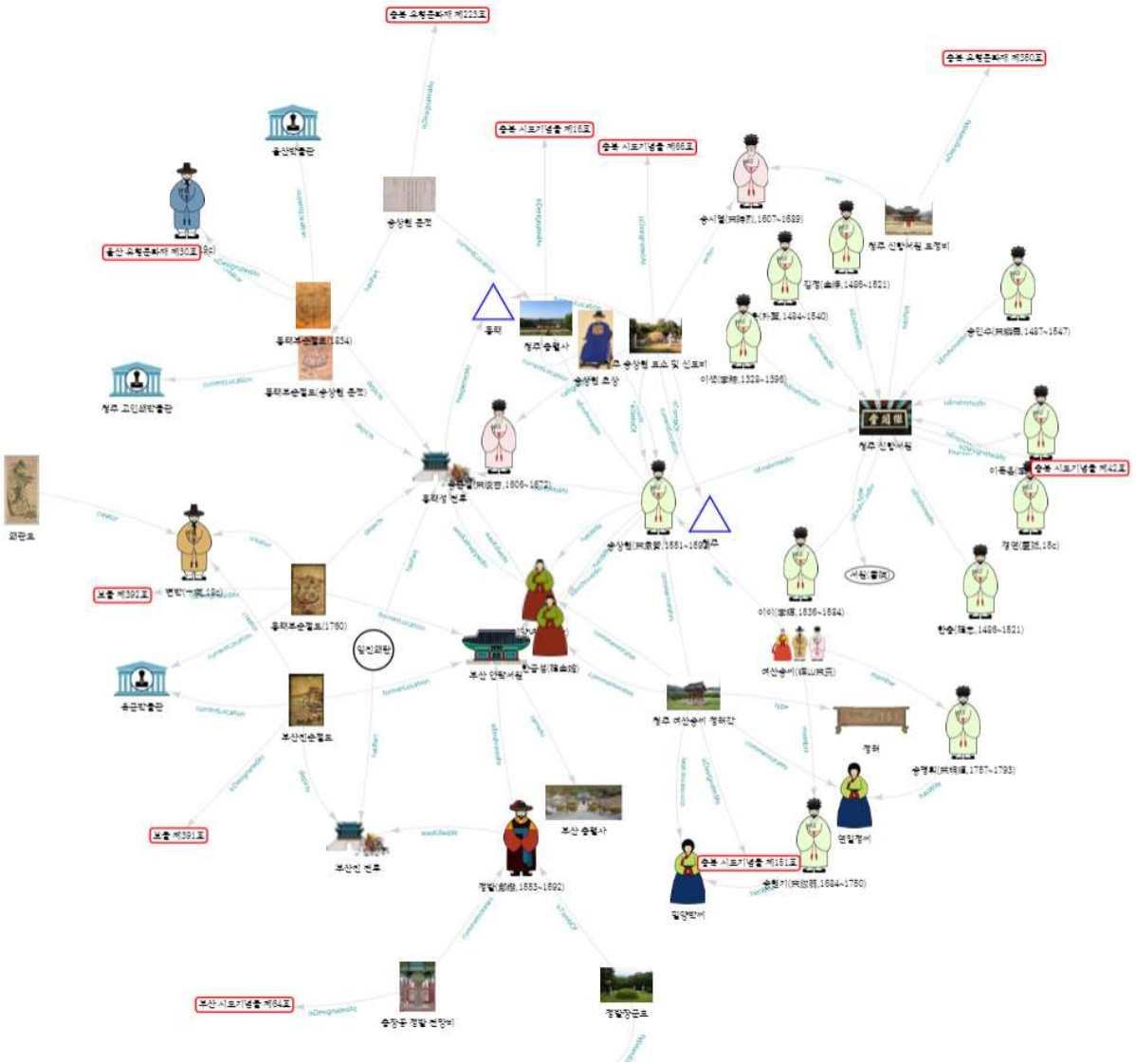
청주 신항서원


이색(李穡,1328~1396)
이득윤(李得胤,1553~1630)
김정(金淨,1486~1521)
박훈(朴薰,1484~1540)
이이(李珥,1536~1584)
청주 신항서원
송인수(宋麟壽,1487~1547)
송상현(宋象賢,1551~1592)
송시열(宋時烈,1607~1689)
청주 신항서원 묘정비
한충(韓忠,1486~1521)
경연(慶延,15c)
서원(書院)
충북 시도기념물 제42호
충북 유형문화재 제350호
ekc:isEnshrinedIn
ekc:founder
ekc:isDesignatedAs
dcterms:type
dcterms:hasPart
ekc:writer

송상현 묘소 및 신도비


동래부순절도 1760
울산 유형문화재 제30호: 동래부순절도
임진왜란 壬辰倭亂 1592-1598
dcterms:hasPart
ekc:depicts
ekc:isDesignatedAs
송준길 宋浚吉 1606-1672
ekc:depicts
동래부순절도 1834
ekc:depicts
동래부순절도(송상현 문적)
동래성 전투 1592.04.15
ekc:wasKilledAt
ekc:calligraphyOf
edm:happenedAt
송상현 宋象賢 1551-1592
ekc:isTombOf
ekc:writer
송시열 宋時烈 1607-1689
동래
edm:formerLocation
ekc:isSteleOf
송상현 신도비
dcterms:hasPart
dcterms:hasPart
송상현 묘소
edm:currentLocation
청주
청주 송상현 묘소 및 신도비
충북 시도기념물 제66호: 청주 송상현 묘소 및 신도비
ekc:isDesignatedAs

송상현 관련 문화유산



데이터 기반의 문화유산 해설문 편찬 연구

1

- 국문 해설문에 담기지 않은 역사적 맥락을 데이터로 기술
-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로 엮기 – Storytelling

2

- 의미 있는 Small Data 가 모여 한국 문화유산 정보의 Big Data 를 구축
- 관련 인물 또는 관련 문화유산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
- 해설문에 담아낼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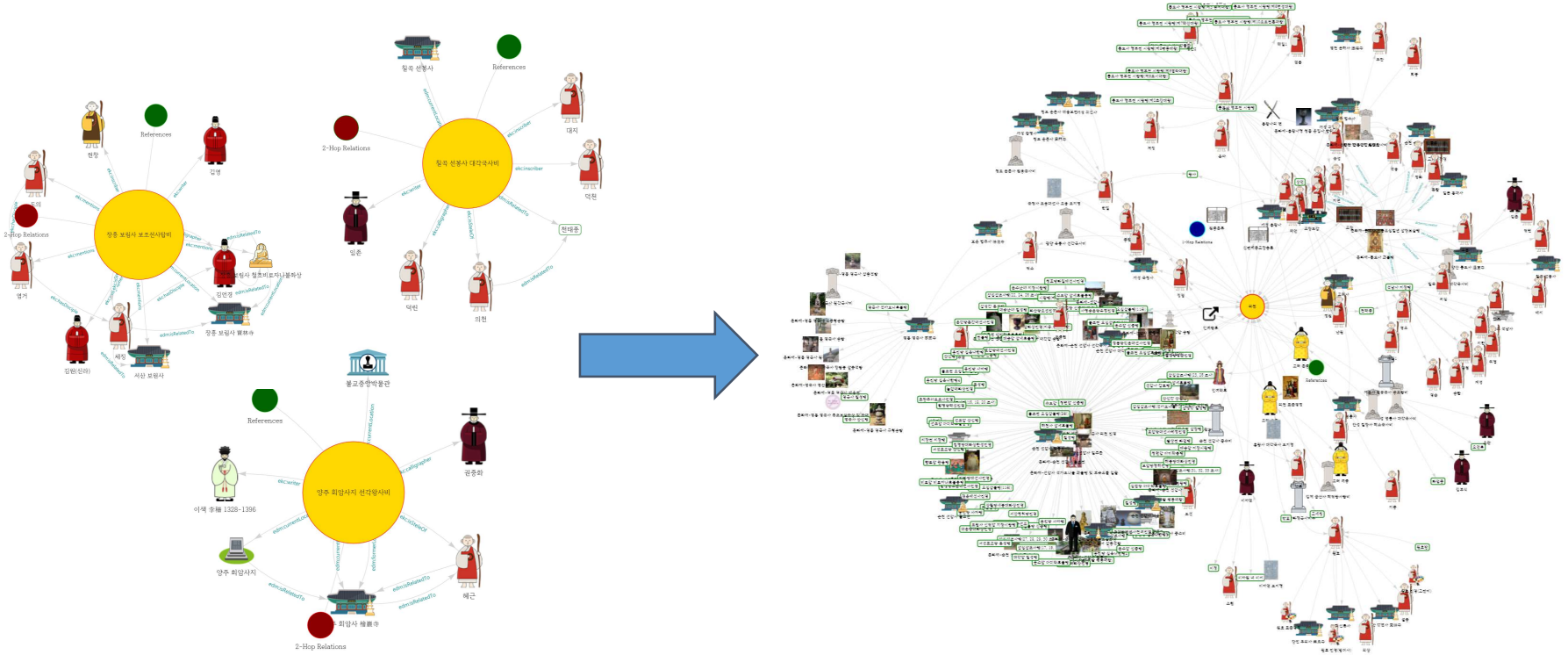
-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 집필의 자동화
  → AI / Machine-assisted Human Translation
- 비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이야기 소재 발굴

한국 고승 탑비 Big Data

탑비(塔碑) : 승려의 행적을 기록한 비(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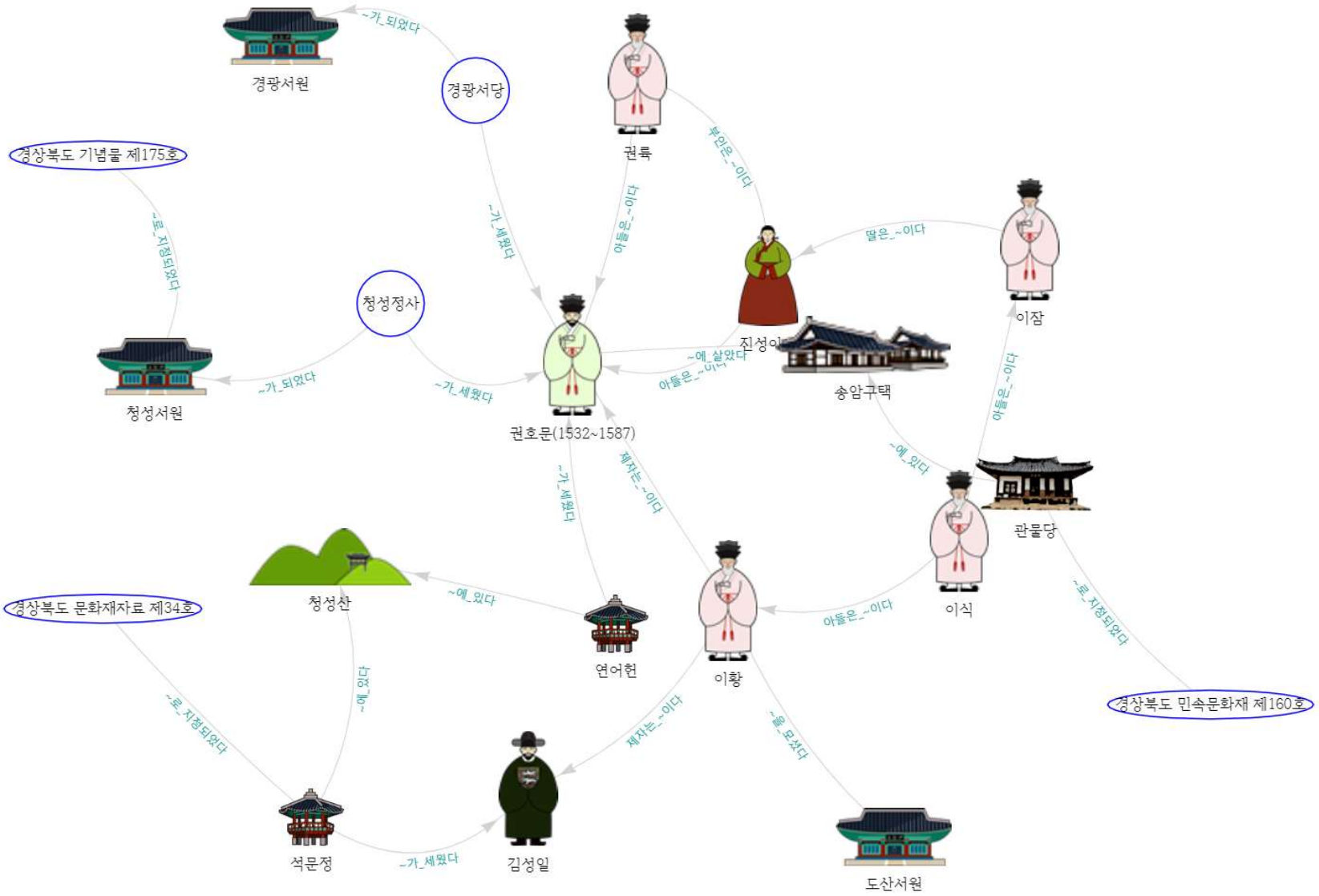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탑비 48기를 중심으로 500여 개의 지식 노드(탑비 48기, 사찰 및 사지 113개소, 승려 103명, 관련 인물 68명, 관련 문화유산 95건, 관련 문헌 14건, 개념용어 51건 등)를. 추출.

탑비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을 데이터로 기술하여, 탑비의 주인인 승려의 행적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그의 자취가 남은 다양한 문화유적을 연결함으로써 그가 살았던 시대의 불교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관계망을 구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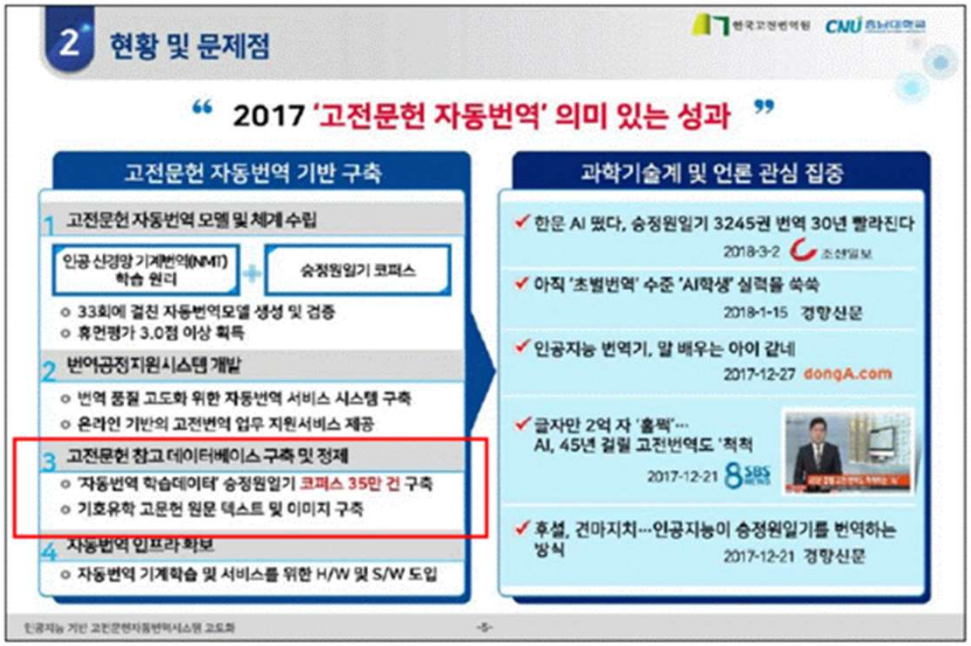
http://dh.aks.ac.kr/~tutor/cgi-bin/ency2019/encyStory02.py?의천

비지정문화재 – 연어헌 (경상북도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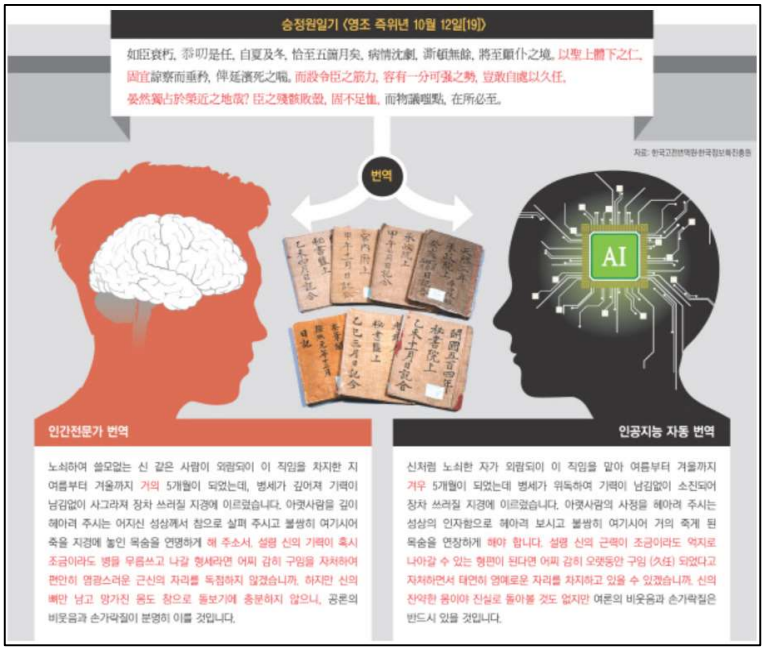


http://dh.aks.ac.kr/~heritage/wiki/index.php/권호문과_연어헌

고전번역과 데이터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2.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고도화」, 『2018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 자료집』, 43쪽.



출처: “아직 ‘초벌 번역’ 수준 ‘AI 학생’ 실력은 쑥쑥”, 경향신문, 2018.01.14.

“인간 전문가가 번역할 경우 2062년에야 번역이 완료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을 2035년으로 27년 가량 앞당길 수 있다”

“〈승정원일기〉 원본에 자동번역 기능이 생기면 기존에 불가능했던 통시적인 고찰과 인물,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

“〈승정원일기〉 자체의 내용 연구는 물론, 역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고전번역과 데이터

데이터와 인공지능 자동 통·번역 시스템을 바라보는 역사학·번역학계의 시각

-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고도화는 인문학적 연구와 별개
- 자동 번역 기술의 발달로 고전문헌이 번역된 '이후'에 역사학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
- 인공지능 자동 통·번역 시스템 VS 인간 통·번역 전문가

BUT!

- 인공지능 자동 통·번역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충실하게 보조하는 똑똑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하는 일이 필요함.
- 현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코퍼스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역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인문학적 지식정보를 담은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

고전번역과 데이터

분야별 용어사전 – 한의학, 천문학 등

- 날씨에 대한 정보, 왕에게 처방된 약재, 의례 등 왕실 행사에 사용된 물품 등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함.
- 고전문헌의 번역에는 학제간 협력이 필수적임.

용례사전

- 경전, 이두 등 문서의 특성에 따라 한문의 어순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함.
-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동일한 맥락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함.
- 따라서 용어가 사용된 문장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 문리(文理)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고전번역과 데이터

번역 히스토리 - 역주

- 대역어 선정, 역사적 해석 등의 근거를 남기는 일이 중요함.
- 다른 번역자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적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음.

유사 문헌자료 정보 제공

- 한국고전종합DB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승정원일기의 경우, 실록의 동일 기사를 함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날짜가 같은 기사를 매칭한 것일 뿐, 동일한 내용을 다룬 기사라고 볼 수 없음.
- 동일한 사건,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사한 문헌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관련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함.